전법 일기

나성(羅城)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은 세샘트리오가 1978년 발표한 대중가요다. 제목 '나성(羅城)'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줄임말인 LA를 음차한 것으로 1970년대 당시 군부정권의 외래어 사용 규제 때문에 'LA에 가면'이라는 제목이 '나성에 가면'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14년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 배우가 극 중 열창해 한 번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곡이 됐다. 이 덕에 미국은 가 본 적이 없는 나도 먼 타향의 정취와 향수(鄕愁)의 도시로 LA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다 올해 여름 LA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 국제포교사회가 숭산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LA 달마사에서 열리는 '제1회 자타카 어린이 영어 캠프'의 지도법사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매년 초 초등학생 불자들이 〈자타카(부처님의 전생담)〉를 영어 스피치와 각종 공연 형식으로 선보이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의 한국불교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는 발원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영어 캠프라고 하니 자못 기대됐다.

7월 18일 9명의 아이들과 처음 만나 함께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열두 시간의 비행에 올랐다. 입국심사장에서 "All kids are your sons and daughters?"(이 애들이 다 당신 아들딸인가요?)라고 오해 받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고, 한국의 두 배 이상 되는 물가에는 많이 놀랐다. 또 LA 달마사 주지 금선 스님과 달마사 정음한글학교장 우상 스님, UCLA 한국학 방문 연구원 천경 스님, LA 안국선원 주지 웅산 스님 등 많은 스님과 달마사 청년회 등 교민 불자님들의 큰 협조와 보살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LA 달마사에서 오전에는 숭산 스님의 전법제자인 폴 박(Paul Park) 법사의 불교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LA 근교의 유명한 관광지인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리피스 천문대, 게티 빌라 등을 돌아보며 미국 서부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아이들도 금세 친한 동무가 되어 어느새 이동하는 버스 안은 좀처럼 조용할 새 없이 소란스러워졌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아이들 웃음소리, 쉼 없이 재잘대는 소리로 도량이 가득 찼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새삼 한국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를 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돌아다보았다. 맏언니같이 의젓한 우현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잘 부르던 체육부장 시우, 도라에몽 프로펠러 모자가 잘 어울리던 재주 많은 연우, 승부욕이 강한 똑순이 채은이, 장래 희망이 선생님인 재인이, 스케이팅 선수 키다리 소빈이, 여성스러우면서도 터프한 세린이, 비행기 앞 좌석에서 스님을 자꾸 훔쳐보고 씩 웃던 선나, 늘 관심과 사랑이 받고 싶은 동건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 무탈하게 잘 다녀감을 감사드렸다. 이제 '나성에 가면'을 들으면 떠오를 아홉 분의 천진불이었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현 부산불교방송 언론특보)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⑲ 확암 선사의 오도송

화롯불 속 흰 눈처럼 번뇌 사라지니

소 길들이는 채찍도 고삐도 필요 없고, 사람도 소도 모두 사라지니(鞭索人牛盡屬空)
푸른 하늘은 광활하여 오도(悟道)의 소식 전하기 어려워라(碧天遙濶信難通)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 없으니(紅爐焰上爭容雪)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到此方能合祖宗)

확암 사원(廓庵 師遠, 1103~1176)은 중국 남송시대 때 정주(鼎州) 양산사의 스님으로 〈십우도(十牛圖)〉를 저술했다. 십우도는 선가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목동(牧童)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로 제시하는데 먼저 알기 쉽게 열 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게송(선시)을 붙여서 구성됐다.

'십우도'의 그림은 달마도와 함께 선화(禪畵)를 대표하고, 게송은 선시(禪詩)를 대표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불교미술과 예술, 그리고 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선종의 구도자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찾아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암(확연하게 툭 트인 암자의 뜻이므로 '곽암'은 잘못된 이름이다) 선사가 깨달은 오도송을 여덟 번째인 '인우구망(人牛俱忘)'으로 선택했다.

'십우도'는 '찾을 심(尋)'을 써서 '심우도'라고도 부르는데,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①심우(尋牛),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②견적(見跡), 드디어 소를 발견하는 ③견우(見牛), 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고삐로 묶는 ④득우(得牛), 소가 잘 길들어 고삐도 채찍도 필요 없는 ⑤목우(牧牛), 목동이 소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⑥기우귀가(騎牛歸家)까지 소를 찾는 발심과 수행이 끝난다.

⑦망우존인(忘牛存人)은 집에 돌아온 목동이 이젠 안심이 되어 소에 대한 걱정을 잊고 홀로 누워 즐긴다.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의 세계는 사라지고 바라보는 주체만 남았다.

⑧인우구망(人牛俱忘)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져 하나로 합일된 깨달음의 세계이다. 3·4구에서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가 없으니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라고 읊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를 깨달아 부처가 된 공왕불(空王佛)의 경지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 망상이 사라졌다. 둥그런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했다.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도(牧牛圖)는 '소도 목동도 둘 다 소멸하는[雙泯]' 인우구망에서 최종 수행 단계가 끝난다.

⑨반본환원(返本還源)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시작한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자연)으로 돌아왔다. ⑩입전수수(入廛垂手)는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한다. 마지막 깨달음의 완성 단계이다.

인간의 삶은 주관[六根, 감각 기관]과 객관[六境, 인식의 대상]을 통해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고 실상과 진리에 대한 앎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인식 작용의 주체가 되는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이 청정하면 바르게 볼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뒤틀어지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 고통에 빠진다. 또 바라보는 대상의 겉모습[相]에 집착하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인우구망(人牛俱忘)'은 무아(無我)와 무경(無境)의 경지에서 자신도 소도 모두 잊고, 주체와 객체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 자유를 터득한 인경구탈(人境俱奪)의 경지이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신만고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대승 보살행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사찰음식 가치는 '오관게'에 있다

8월 19일 현재 16일 간 지속된 폭염으로 스페인에서 1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기후 위기가 절실히 체감되는 소식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식문화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숲이다. 하지만 숲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인간의 식탐 때문에.

전 세계 농지 중 소·양·염소 등을 방목하는 토지가 70%, 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가 13%에 달한다. 인간이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농지는 17%에 불과하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육류 섭취만 줄여도 이 혜택은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식문화는 중요한 화두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하는 '기후미식'이라는 개념이 부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실제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식이가이드(Food-based dietary guidelines)'를 적용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된 빵과 파스타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모두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8월 19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음식학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해답으로서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에 주목했다. 석학들은 사찰음식은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본질(파올로 코르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석학들이 매료된 사찰음식 본질에는 바로 '오관게'가 있다. 브렌던 R. 월시 미국 CIA 학장은 "'오관게'에 식문화의 미래가 담겨 있다"며 "최근 CIA는 음식물 쓰레기, 재료를 대하는 방법, 동물복지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해답이 사찰음식에 있다"고도 했다.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에 가장 부합하는 식문화는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이다.

한국불교가 알려야 할 사찰음식은 조리기술에 있지 않다. '오관게'에 바탕으로 한 생명사상에 있다. 이것이 세계인이 주목할 사찰음식의 가치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